

가고시마시 이벤트

가고시마 마라톤 2018 개최



2018년 3월4일(일) 가고시마시에서 '가고시마 마라톤 2018'이 개최된다.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의 해인 2018년도에 열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더 깊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42.195km 마라톤과 8.9km 편런(Fun Run)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톤은 제한시간이 7시간이며, 편런은 시간 45분이다. 또한 마라톤은 대회당일 만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편런은 중학생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마라톤의 총 참가자는 10,168명으로 그 중에서 완주한 마라토너의 수가 9,197명으로, 완주율이 90.45%로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마라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마라톤 코스는 돌핀포트 앞을 출발해서 시노덴전차가 달리는 길을 따라 시가지의 거처 센간엔을 지나 사쿠라지마와 긴코완이 펼쳐지는 해안도로로 이어져 자연과 바다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로서 지정 되어있다. 가고시마 시가지의 매력은 물론 역사도 느끼면서 달릴 수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다.

편런 코스는 돌핀포트 앞에서 출발하여 가고시마시 현청쪽으로 달려, 마지막에는 야마카타야 백화점앞에서 끝나며, 가고시마시가지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코스이다. 마라톤 참가자들이 한창 달리고 있는 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중앙공원 쪽으로 가면, 공원광장에서 스크린으로 참가자들의 활약상을 응원하면서 한가로운 휴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있다. 메이지유신150주년 기념인 해에 열리는 마라톤 만큼, 광장에는 가고시마의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부스가 많이 있다. 이날 인기였던 것은 가고시마의 흑돼지로 만든 가쿠니(돼지고기 찜과 비슷)를 얻은 가쿠니동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라톤을 볼 수있어서 한 층더 들뜬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관련 정보 : <http://www.kagoshima-marathon.jp/>

가고시마 라면왕 결정전

지난 2월16일에서 18일 일에 걸쳐 가고시마시 워트프론트 광장에서 제 4회 가고시마 라면왕 결정전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인 라면왕결정전은 가고시마 텔레비방송국의 주최로 열린다. 가고시마의 라면가게들이 모여 그 맛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투표결과로 최고의 라멘을 선발하는 행사이다. 제4회 행사가 열리기 전 가고시마현민을 대상으로 사전양케이트를 실시하여 선발된 가고시마의 15곳의 라멘가게와 전 행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18곳의 가게들이 참가한다. 행사가 개최된 3일간 가고시마현내외에서 약 16만인이 찾아와 여러 가게의 라멘의 맛을 즐기고 각자 자신의 마음에도는 가게의 라멘에 한표를 던진다.

가고시마의 라멘은 돼지뼈로 우려낸 국물을 기본으로 닭뼈와 어패류국물을 더하는 등 독자적인 맛을 추구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직접 가보지 않아도 한 곳에서 다양한 맛과 매력을 가진 가고시마의 라멘을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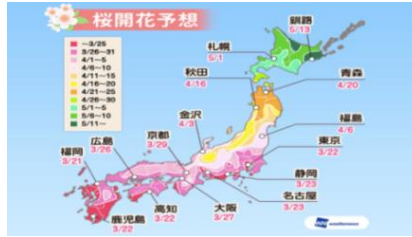


1위	고로야
2위	Takeatora(이부스키시)
3위	사카노에 유니크
4위	멘야고우
5위	가고시마라멘 산난보(가노야시)

-관련정보 <http://www.kts-tv.co.jp/event/ramen2017/>

가고시마 이모저모

일본의 벚꽃 개화시기와 가고시마시 벚꽃 명소



일본에서는 다양한 연중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것을 손꼽자면 봄의 벚꽃놀이가 아닐까 싶다. 일본에서는 매년 3월에서 4월경 가족, 회사 동료, 친구 등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 벚꽃놀이에 참가

한다. 벚꽃 나무 아래에 돛자리를 깔고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벚꽃을 즐기는 것은 일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풍경이다. 벚꽃은 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꽃놀이 계획을 세운다. 그 중에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사는 지역 또는 방문할 지역에 언제 벚꽃이 피는가이다. 꽃놀이 하기에 좋은 명당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경쟁을 하는 모습이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등에서도 볼 수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여러 기관이나 사이트에서 벚꽃 개화시기 예측이 발표되며 3월초부터는 기상청에서 전국단위로 구체적인 벚꽃 개화 시기 예측과 개화 현황을 발표한다. 벚꽃은 따뜻한 남부지방, 해안지역부터 피기 시작해서 점차 북부 지방과 내륙에서 피게된다.

일본의 벚꽃개화시기를 보면우리나라 보다는 약 한달정도가 빠른것을 알 수 있다. 한달빠른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벚꽃시즌에 많이 여행을 계획하는 편이다. 특히 이번 규슈지역은 예년과 비교하여 다소 빨리 개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2월말부터 15도가 넘는 날이 있었고, 3월이 되어서도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올해 가고시마의 개화시기는 3월 21~22일, 만개시기는 3월 30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벚꽃놀이는 3월 말 무렵부터 4월 초까지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고시마시의 벚꽃 명소로는 센간엔(이소 정원), 요시노 공원, 고쓰키가와 강변, 가고시마성(쓰루마루 성) 주변을 꼽을 수 있다.

관광관련 소식

한국인 관광객의 급증

한국의 제주항공이 1월6일부터 가고시마 서울간 취항을 시작한다. 현재 가고시마와 서울을 잇는 항공편은 지난20년간 계속 운항해온 대한항공과 작년11월에 취항한 이스타항공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취항이다. 기존의 대한항공도 항공편수를 늘려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더 늘어날것으로 본다. 가고시마에서 서울의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정도. 한국인관광객에게 가고시마는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온천, 맛있는 음식이 많은것으로 인기에, 골프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다. 요근래 한국에서는 일본지방도시를 소개하는 여행방송의 영향으로 일본의 지방도시로의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가고시마로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또한 관광객들의 방문에 앞서 가고시마가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 또한, 한국의 저가항공의 신규취항과 중국 크루즈선 객의 증가, 대만•홍콩등 으로부터 규슈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꾸준히 늘고있다고 한다. 규슈운송국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최대였던 2016년도의 기록을 깨고 올해 최다 484만인을 달성했다고 한다. 이렇듯, 규슈로의 입국자의 과반수가 아시아로부터라고 한다.

진코만 소식

시민들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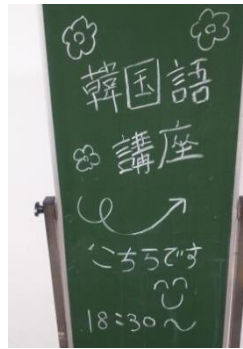
한국어초급 강좌

가고시마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가고시마시청 한국인 국제교류원이 2월6일부터 3월2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를 실시한다. 저번년도 입문강좌에 이어서 이번에는 초급강좌이다. 이번 초급강좌에서는 한글 읽기,쓰기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법과 기본 회화를 공부하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초급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8시에 끝난다. 강의 시작 전 강사가 준비한 자료를 전달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PPT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1시간 30분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입문강좌와 다르게 한국어의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말을 해야 하는 회화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참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번에도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 덕분에 매 주 즐거운 초급강좌를 진행 할 수 있었다.기본회화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비롯한 기본인사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숫자읽는 방법,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세는 법 등에 관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고 있다. 빠른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 k-pop를 추천하는 등 참가자들이 즐겁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화소개로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겨울철 간식과 설날에 대해서, 올해 개최된 평창올림픽과 전통행사인 정월대보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수호랑과 반다비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정월대보름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앞으로 한국어강좌는 3월13일,3월20일 2회가 남았다.

마지막까지 수강생 여러분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문화·영어중급강좌

가고시마와 자매도시인 호주 퍼스시의 출신 국제교류원 티아씨의 중급영어문화강좌가 지난 1월부터 2월 한달 간 총8회로 매주 수요일 실시되었다. 티아씨의 이번영어강좌의 테마는 가고시마의 매력을 영어로 소개하는 것이다.

매년 가고시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고있는 추세로, 이로인해 관광객들이 길을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실제로 가고시마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티아씨의 영어강좌에도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더 배우고 싶은 사람,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주고싶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이 강좌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강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에 관한 강좌도 진행됐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쓰이는 영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문화를 비롯한 행사·습관·전통에 관해서 소개했다. 또, 가고시마와 자매도시이자 티아씨의 출신지인 퍼스시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자녀가 함께 즐기는 국제교류 이벤트

가고시마 마라톤이 개최된 3월4일 토요일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부모자녀가 함께 즐기는 국제교류이벤트가 실시되었다. 장소는 가고시마시 산프라자 덴몬칸.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원 3명이 한국어,중국어,영어로 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준 후, 각국의 언어로 사계절에 관련된 단어와 그림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과 교류하였다. 이날 읽은 그림책은 유명한 어린이동화작가인 에릭 칼의 「배고픈 애벌레」였다.

이미 일본과 여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림책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언어로 읽어도 아이들이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날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있었던 것은 한국어 버전의 「배고픈 애벌레」였다.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한국어는 배가플때 배에서 나는 소리인 「꼬르륵 꼬르륵」이었다. 그림책에서 애벌레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계속 배가고픈 상황을 한국어 버전에서 음성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

에게 재미있는 소리로 받아들여진것 같다. 아이들 덕분에 나도 모르는 한국어의 매력을 발견한 느낌이 들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

그림책 읽기가 끝난후 「이스터」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서 진행됐다. 호주출신 국제교류원이 이스타문화에 관한 설명을 했다.

이스타의 유래와 서양에서 이스타를 기념하는 방식과 일본에서의 방식이 다른점과 이스타에 먹는 음식을 소개했다. 설명이 끝난후, 이스타 에그 헌터를 즐겼다. 이스타 에그헌터란 곳곳에 숨겨진 달걀을 찾는 놀이인데 요즘에는 주로 달걀모양을 한 플라스틱 통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둔다.

게임을 진행하기전 달걀을 이곳저곳 숨겨놓았지만 아이들은 금세 달걀을 찾아내어 기뻐하는 모습이 가득했다. 모든 달걀통안에 과자가 들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과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재미 또한 아이들이 즐거워할 요소이다.



에그헌터 게임이 끝난후 행사는 계속 진행됐다. 바로 이스타행사의 묘미인 달걀을 꾸미는 놀이이다. 미리 준비한 삶은 달걀을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나눠준 후 국제교류원3명과 함께 달걀에 색을 입히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자신의 스타일대로 가지각색인 이스타 달걀을 만들었다. 달걀을 만드는 동안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개인적으로도 교류를 할 수있었다. 달걀을 다 만든 아이들은 남은 시간동안 국제교류원들과 함께 각국의 동요를 들으면서 댄스를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동요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동요의 리듬감과 캐릭터들의 댄스를 통해 아이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를 띄었다.아이들과 교류하는 행사는 항상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적극성에 감탄하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고시마 전지훈련

sk와이번즈 전지훈련

가고시마는 기후가 온화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식자재가 풍부해서 매년 프로팀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한다. 이번 봄, 한국프로 야구팀 sk와이번즈가 2월13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지훈련을 위해 가고시마시를 방문했다.



가고시마시에서는 이번 sk와이번즈의 가고시마시 방문을 환영하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2월 20일에 격려식이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돔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가고시마시 모리시정님을 대신해 가고시마시 관광교류국 차장님이 인사말을 전했다. 가고시마시에서 꽃다발을 김무관 감독에게 전달했고 이어서 흑돈, 짬방어, 감귤주스, 녹차등 가고시마의 특산물을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김무관 감독은 인사말에서 전지훈련지역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가고시마에서 훈련을 하게 된 만큼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